



大學圖書館의 學部學生用 藏書構成에 관한 小考

孫 正 彪
慶北大圖書館學科專任講師

一. 序 言

오늘날의 大學教育의 目的과 機能은 高度의 知的 文化의 繼承·傳達과 創造·發展 및 國家社會의 指導者 養成이라는 傳統의 目的의외에 產學協同體制의 強化로부터 現實社會를 改造해 보자는 새로운 目的 指向的인 方向設定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現實社會로의 적응을 위하여 大學教育의 使命과 方向도 더욱 多變化多樣化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大學들도 한편으로는 個人研究보다 大單位 共同研究의 方向으로 나아감으로써 研究하는 大學으로 變貌해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傳統의인 教授方法이었던 教科書中心主義, 教授中心主義를 止揚하고 課題中心主義, 學生中心主義를 위한 實驗大學 教育制度를 1973년부터 實施·擴大해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大學의 3大機能인 研究·教授·奉仕의 極大化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大學教育構造가 時代的인 方向轉換現象을 자아냄에 따라 大學圖書館도 역시 그러한 現實에 適應하여 그 理念具現과 効率的인 目的遂行을 위하여 學部學生들의 自律學習 支援을 위한 '學習圖書館(undergraduate library)의 機能'과 教授 및 研究員들의 積極的인 研究支援을 위한 '研究圖書館(research)의 機能'發揮의 極大化라고 하는 重大한 局面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의 現實情을 보면 變貌되어 가고 있는 高等教育制度를 支援할 수 있기에는 특히 藏書構成面이나 奉仕構造體制面에 있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狀態에 놓여 있다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本 論稿의 意圖는 현재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이 直面하고 있는 그러한 問題點들을 다스나마 解決하고, 圖書館資料를 통하여 教授와 學習, 研究·調査間에 相互有機的인 關係가 맺어질 수 있도록 奉仕構造再體制化를 위한 方案으로 제시하고자 上記한 兩大機能中 '學習圖書館의 機能' 遂行에 最小限으로 要求되

는 學部學生用 藏書構成 範圍를 究明하고자 한 것이다.

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 添言할 것은 學生用 圖書類型中 指定圖書와 參考圖書의 경우는 利用統計資料의 不足으로 除外하고 一般館外貸出圖書만으로 局限시켜 算出하였음을 밝혀둔다.

二. 學部學生用 藏書構成의 意義와 諸見解

1. 學生圖書의 定義

大學圖書館의 各種 情報源을 利用·目的 혹은 機能別로 大別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 (1) 研究目的을 위한 研究圖書, 專門圖書
- (2) 學生들의 自學·自習을 위한 學習圖書, 教養圖書, 參考圖書
- (3) 教授가 學生들에게 必讀書로서 부과해 놓은 指定圖書

(4) 利用도가 낮은 諸資料로 保存을 위한 圖書

(5) 其他 資料——記錄文書類, 視聽覺資料, 特殊資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範疇, 혹은 類型까지를 學生用 圖書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事實 이에 대한 正確한 概念規定을 내리기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라 하겠지만, 一般的인 見解를 살펴 보면 狹義的인 概念과 廣義的인 概念의 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狹義的인 概念의 學生用 圖書라 함은 學生自體의 自主的인 研究, 自學自習 혹은 自己形成을 위한 圖書로 教授가 講義에서 必讀(required reading)을 목적으로 과제를 부과시키지 않은 自由選擇의 對象으로 된 圖書, 即 學生의 要望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영되어 있는 圖書를 의미하며, 廣義的인 概念은 必讀을 부과시킨 圖書까지를 의미한다 하겠다.²⁾ 이를 다시 圖書의 類型

1) "學生用圖書について—第20回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總會資料, 大學圖書館研究(日本國) III-N(1974. 3), p. 156.

2) 上揭論文, 同面.

別로 區分해 보면 前者에 속하는 圖書로는 專門圖書, 敎養圖書, 學習圖書, 參考圖書 등을 들 수 있으며, 後者는 上記 圖書 以外에 指定圖書까지를 包含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³⁾ 通念的으로는 學生用 圖書라고 하면 前者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學生用 圖書를 그것이 必讀書로 부파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利用目的에 따라 區別할 것이 아니라 資料의 주된 利用對象者가 누구인가에 따라 識別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廣義的인 概念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Harvard大學의 Lamont圖書館(Undergraduate library)에서 ① 敎養課程圖書(2個年), ② 敎養的 圖書, ③ 指定圖書(敎科書 및 敎科課程用 圖書를 칭함), ④ 專門書(敎科參考書 및 自學學習書), ⑤ 學生寄宿舍用 圖書의 5가지로 나누어 收集하고 있는 것처럼⁴⁾ 廣義的인 概念에서 敎養, 專攻學習 補助資料, 必讀資料, 參考圖書까지를 學生用 圖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學部 學生用 圖書들에 대한 藏書構成은 Danton과 Columbia大學圖書館이 제시하고 있는 理論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收集段階를 의미하는가.

Danton은 藏書構成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5段階로 나누어 놓고 있다.

1段階는 minimal collection——이는 가장 基本的이고 初步的인 情報만을 選擇한 藏書構成이다.

2段階는 working collection——이는 적어도 大學院生이나 教授의 豫備的인 調査를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3段階는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이는 收集段階에서 始作되는 本格的인 研究支援을 위한 것이다.

4段階는 comprehensive collection——이는 많은 研究를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5段階는 true completeness——이는 研究的 價値가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全部 收集하는 것이다⁵⁾라 하고, 한편 Columbia大學圖書館은 藏書의 質的 評價와 收書計劃의 確立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基準을 設定하고 있다.

1段階는 basic information collection——이는 基礎的인 知識을 얻기 위한 程度로 최소한도의 基本的인 參考圖書를 말한다.

2段階는 working collection——이는 學部學生의 專攻科目 學習에 필요한 程度의 藏書構成을 말한다.

3段階는 general research collection——이는 大學院學生의 學位論文 作成 및 自主的 研究에 필요한 程度의 一般研究用 藏書構成을 말한다.

4段階는 comprehensive collection——이는 一般研究用 藏書構成에 追加하여 新研究수행에 필요한 單行本,

歷史的 研究에 필요한 各國語 資料를 포함한 藏書構成을 말한다.

5段階는 exhaustive collection——이는 특정 컬렉션의 主題分野의 資料에 대하여는 어떤 國語로 되어 있건 可能한 限 廣茫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⁶⁾ 이와 같이 藏書構成의 範圍를 5段階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러한 두 理論에 비추어 보았을 때 學部 學生用 藏書構成의 段階란 가장 基本的이고 初步的인 情報提供을 위한 最低段階로, 筆者의 한 論文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5個國 15個基準中 12個基準이 新設大學의 경우 學生 1人當 20~30卷 程度의 基準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段階에 속하는 基準이라고 할 수 있다.⁷⁾

2. 學生用 藏書構成에 관한 諸見解

國內外에서 法規나 私案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學部 學生用 藏書構成 基準을 보면 상당한 見解差를 보이고 있다.

Harvard大學의 學部 學生用 圖書館인 Lamont圖書館의 藏書量에 대한 Metcalf의 報告에 의하면 10만권의 藏書로써 學生 要求의 90%를 充足시키고 있다.⁸⁾ 하고, Princeton大學의 Dix 館長은 8~10萬種(titles)으로 수업과목에 필요한 要求의 80%를 만족시킨다¹⁰⁾ 하는가 하면,

Branscomb은 5個 大學(College)의 학생이용상황을 調査해 본 결과 總藏書 345,000卷 代身に 정확히 選定한 圖書 25,000卷만 가지면 5個大學 學生들의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으며, 10,000권만 가지면 어느 大學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3) 上掲論文, 同面.

4) 上掲論文, 同面.

5) Periam J. 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p.112~115.

6) Maurice F. Tauber, and others,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8), pp.260~261.

7) 孫正彪, “各國大學圖書館藏書構成基準의 比較考察” 圖書館學論集 第2輯(1975): 19

8) Keyes D. Metcalf, “The Ever Expanding Demand for Materials and the Threatened Decline of Support” *Changing Patterns of Scholarship and the Future of Research Libraries*(1951), p.34.

9) 1965年 統計에 의하면 Lamont圖書館目錄은 36,399種, 142,091권의 학부학생용 도서를 수록하고 있다. (Irene A. Braden, *The Undergraduate Library* (Chicago: ALA, 1970), p.16~17.

10) William S. Dix, “敎授方法と圖書館の利用”, 第1回 日米大學圖書館會議 議事錄(東京: 大學圖書館國際連絡委員會, 1970), p.32

11) Harvie Branscomb, *Teaching with Books: a Study of College Libraries* (Chicago: ALA, 1940), pp. 169~170.

또 Lund는 學部 學生의 一般敎養을 위하여는 5,000種으로 足하다 하고,¹²⁾ 日本에서는 5만권을¹³⁾ Michigan大學의 學部 學生用 圖書館은 125,000~150,000권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한편 Rogers는 Michigan大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25,000~150,000권(85,000~100,000種)을 上限線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¹⁵⁾ Texas大學 學生用 圖書館은 175,000권을 上限線으로 하고 있고,¹⁶⁾ Indiana大學 學部 學生用 圖書館은 要求의 80% 滿足을 위해 75,000권의 收藏을 계획하고 있다.¹⁷⁾

이에 반하여 Clapp과 Jordan이 Shaw目錄과 Lamont, Michigan, California大學 目錄을 조사하여 수립한 것을 보면 35,000種에 42,000권이 學部圖書館의 基本藏書라 하고 있고,¹⁸⁾

美國의 學部學生 圖書館用 標準圖書目錄으로 널리 알려진 Shaw의 目錄에 收錄된 것을 보면 約 14,000種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¹⁹⁾ California大學 選定目錄에는 53,400種을 추천하고 있다.²⁰⁾

이밖에 學部 學生用 藏書量이라고 限定되어 있지는 않지만 筆者의 한 論文에서 究명한 바와 같이 Danton의 理論에 비추어 보았을 때 學生들의 自學·自習 支援을 위한 最低의 基準으로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Standing Conference of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는 新設大學校의 경우 最低 100,000권의 장서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고,²¹⁾ 캐나다 大學校 圖書館 基準도 역시 100,000권의 藏書량이 最小의 必要量이라 하고 있다.²²⁾

이처럼 “學部學生의 경우는 대체로 獨自的 研究에 대한 基礎的인 훈련의 미비로 敎授의 指導方法에 따라 圖書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資料에 대한 要求도 大學院生, 研究員, 敎授들처럼 多岐하지 않고 敎科課程에 관련된 一定量의 圖書를 가지고도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다.”^{23), 24)}는 점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도 最適藏書量 範圍策定에 대하여는 異論을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多角的인 要素分析으로부터 理論的 模型定立을 위한 研究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당성 있는 모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위에 제시해 놓은 諸見解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8만餘種에 10만餘卷 程度를 學部 學生用 最適藏書量으로 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三. 學部學生用 藏書構成 範圍

大學圖書館 藏書構成 範圍決定에 영향을 주는 諸要素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意見이 제시된 바 있다.²⁵⁾ 지금까지 제시된 諸見解를 종합하여 한

마디로 表現하면 大學圖書館 藏書量 規模는,

- (1) 奉仕對象者—學部學生, 大學院生, 敎授의 規模와 敎授方法
- (2) 敎科課程—學科의 規模와 敎科課目, 碩·博士課程分析
- (3) 利用도와 要求度
- (4) 出版量

등 4가지 基本要素의 分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諸要素들의 相互有機的인 作用, 即 相關關係 속에 놓여 있는 4要素間의 相互作用에 의한 要求도와 滿足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藏書量의 最大範圍는 敎科課程이나 研究計劃의 수행을 위한 要求量을 만족시킬 수 있는 量의 範圍가 곧 最大範圍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本 論稿에서 定立하고자 하는 學部學生用 藏書의 最適量 算出도 역시 이러한 理論을 기초로 하여 算出하였다.

最適量 算出에 導入한 公式은 筆者가 한 論文에서 Trueswell과 Leimkuhler의 藏書比率과 貸出比率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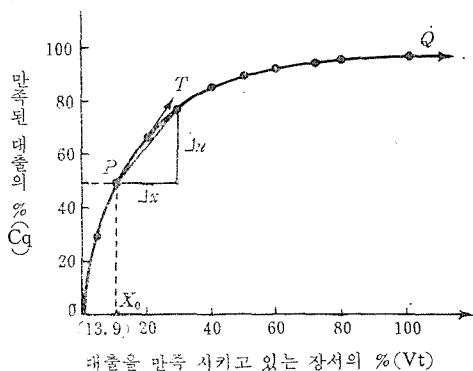
12) Guy K.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Wilson, 1949), p.335.
 13) 文部省 大學學術局 情報圖書館課, 大學圖書館施設計劃 要領(答申) 第3部 施設の計劃, 昭41(岩猿敏生, “大學圖書館藏書論”, 仙田正雄敎授古稀記念圖書館資料論集(天理: 同記念會, 1970), p.23에서 再引用)
 14) 上掲書, 同面.
 15) Rutherford D. Rogers and David C. Weber,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New York: Wilson, 1971), p.139.
 16) Braden, 前掲書, p.124.
 17) 上掲書, pp.83~84.
 18) Verna W. Clapp and R.T. Jordan, “Q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6(September, 1965) : 375.
 19) Charles B. Shaw, *A List of Books for College Libraries* (Chicago: ALA, 1931)
 20) *Books for College Libraries: a Selected List of Approximately 53,400 Titles Based on the Initial Selection Made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New Campus Program and Selected with the Assistance of College Teachers, Librarians, and Other Advisers* (Chicago: ALA, 1997)
 21) K.W. Humphreys, “Standards in University Libraries,” *Libri*, v. 20, no. 1~2 (1970) : 146.
 22) 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Standards Committee, Guide to Canadian University Standards, 1961~64* (n.p., n.d.), p.19.
 23) 岩猿敏生, 前掲書, pp.21~22.
 24) Branscomb, 前掲書, p.37.
 25) 諸學者들의 견해는 申정표, 大學도서관 基本장서구성기준에 관한 연구(未刊本 석사학위논문)(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2), pp.15~23 參照.
 26) 上掲論文, p.62.

關係를 나타낸 圖表²⁷⁾로부터 유도해 놓은 陽函數 關係의 方程式을 이용하였다.

算出公式를 들어보면,²⁸⁾

$$Cq = Ke^{avt}$$

[Cq=平均 最大貸出冊數, K=常數, e=自然對數, a=比例常數, Vt=貸出을 만족시킬 수 있는 圖書量]



로, 圖書量 Vt는 <圖表>에 나타난 결과를上記 方程式에 代入하여 풀여 본 결과,

$$Vt = \frac{\log Cq - \log K}{0.4343 \times 0.05}$$

로 나타나고 있다.

이 理論的인 公式에 의거하여 國內外 大學圖書館들의 學生 1人當 平均利用冊數를 基礎로 學部 學生用 藏書의 最適量을 算出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⁹⁾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現況을 보면 1966年度 平均이 8.0冊,³⁰⁾ 1969年度 平均이 8.2冊³¹⁾으로 나타나고, 1973年 현재로 全國 26個 綜合大學中 19個 大學을 調査한 결과 平均이 10冊³²⁾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1930年代에 調査된 美國의 55個 大學圖書館의 學部學生 一般貸出平均을 보면 대체로 年平均 12冊 정도로서³³⁾, 이러한 貸出現象을 1954年에 Knox 大學을 대상으로 Knapp가 調査한 結果에서도 同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³⁴⁾ 1959年의 16.8冊,³⁵⁾ 1967~68年의 28.93冊³⁶⁾의 경우도上記의 平均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大學院生의 利用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除外하고 보면 實際 平均은 12~15冊 정도가 아닌가 추측되며, 最大라 하더라도 20餘冊 內外로 보여 學部學生 1人當 平均의 限界點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現況을 藏書의 質과 貸出條件이 월등한 美國의 大學도서관의 現況과 比較해 볼 때 근소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함은 學生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함을 입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들도 現在의 貸出條件即 1日 貸出이 71個館中 7.1%, 3日 以內가 23.9%, 1주일 以內가 60.6%, 1주일 이상이 5.6%로 91.6%가 1주일 이내로 나타나고 있고, 貸出冊數는 1冊이 35.2%, 2冊이 35.2%, 3冊이 25.4%, 4冊 이상이 1.4%로 80% 이상이 2冊 以內로 제한시키고 있는³⁷⁾ 現실정을 改善하고, 外國과 같이 貸出期間을 2週間, 貸出冊數를 無制限으로 한다면,³⁸⁾ 貸出期間의 50% 短縮은 要求度에 대한 利用可能性을 50% 增加시킨다³⁹⁾는 Leimkuhler 理論의 逆理論面에서 볼 때 貸出冊數는 現在보다 훨씬 增加하여 1人當 最大平均이 약 20餘冊에 達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따라서 本論稿에서는 이러한 理論의 근거에서 이를 最適量 算出의 基礎로 삼았다.

이와같은 근거에서 5,000餘名을 가진 大學을 基準으로 우선 그 貸出量을 算出해 볼때 平均値가 12冊인 경우는 60,000冊, 最大平均期待值인 20冊의 경우는 100,000冊으로, 이를上記 公式에 代입하여 算出해 본 결과, 學生 1人當 平均 貸出量을 최소한 12冊 程度로 유지시킬려면 최소한 借된 圖書로 42,000餘卷 以上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最大 平均貸出期待值인 20冊을 유지시킬려면 그에 대한 最適量으로는 최소한 借된 圖書로 70,000餘卷 以上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算出量을 근거로 하여 學部學生 1人當 圖書量을 수립해 보면 最小量으로는 최소한 1人當 9冊정도, 最適量으로는 최소한 14冊 정도가 適合한 量

27) Richard W. Trueswell, "User Circulation Satisfaction vs. Size of Holdings at Three Academ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0(May, 1969), pp.204~213; F.F. Leimkuhler, "Systems Analysis i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7(February, 1966), p.14

28) 손경표, 前揭論文, pp.63~68.

29) 장서량 산출을 위한 계산과정에 대하여는 下揭論文, pp.75~76 參照.

30) 李春熙, 韓國의 大學圖書館實態 分析(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7) p.56.

31) 李春熙, "大學圖書館篇",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158.

32) 「한국도서관계, 1973년 4월1 일」에 나타난 것으로 館外貸出統計가 명시된 19個 大學을 필자가 조사 집계한 것임.

33) Branscomb, 前揭書, pp.26~27

34) Patricia B. Knapp, College Teaching and the College Library (Chicago: ALA, 1959), p.19.

35) 李春熙, 韓國의 大學圖書館實態分析, p.56.

36) R.B. Downs and J.W. Heussman,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1(January, 1970), p.33.

37) 李春熙,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 p.160

38) Lyle, 前揭書, p.116.

39) Leimkuhler, 前揭論文, p.17.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上記 結果에 나타난 最小 및 最適量에 비추어 보았을 때 學部學生을 위한 年次增加量은 1人當 最小 어느 程度의 規模로 잡아야 할 것인가.

年次增加量의 範圍도 藏書量의 規模와 마찬가지로 要求度와 利用度에 의해 左右된다 하겠다. 즉 資料에 대한 利用度가 높다 함은 그만큼 利用價値가 있는 資料가 많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要求度도 높다 함을 뜻하며, 利用價値가 있는 資料가 많다 함은 곧 出版年度가 오래되지 않은 참신한 資料가 많다 함을 뜻한다 하겠다.⁴⁰⁾ 이처럼 資料의 利用度는 年次增加量 및 不用圖書量과 새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어 결국 年次增加量과 不用圖書量 사이에도 또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특히 이들간의 關係에 대하여 여러 學者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正比例關係로 나타나고 있다.⁴¹⁾

따라서 圖書量이 利用者의 要求度를 最大로 滿足시키고 最大의 利用價値가 될 수 있도록 期待하기 위하여는 圖書의 年次增加率과 年次不用率을 一定 期間을 限界로 하여 同一線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은 理論에 근거하여 上記한 最小 및 最適量을 갖춘 然後의 年次增加量을 算出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年次增加量의 算出을 筆者가 한 論文에서 이미 Burton과 Kebler, 柳京熙씨 등이 자료수명 추정 공식으로 적용한 바 있는 核物理學의 半減期原理를 적용하여 算

出한 바 있는 不用圖書率 6.93%를 근거로 하여 算出하였다.⁴²⁾ 그 結果,

最小年次增加量은 學生 1人當 9(책)×6.93(%)
≐0.62(권)

最適年次增加量은 學生 1人當 14(책)×6.93(%)
≐0.97(권)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上記 結果에 의하면 學部學生用 圖書中 指定圖書와 參考圖書를 除外한 一般館外貸出圖書로서는 最小限 그 以上の 年次增加量을 갖출 때 비로소 資料의 계속적인 不用率에 의해 야기되기 쉬운 欲求不滿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學部學生用 基本藏書量 範圍와 年次增加量 範圍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結論의으로 이들의 算出 結果를 綜合해 보면,

(1) 基本藏書量 範圍는 最小量으로는 最小限 學部學生 1人當 9冊 程度, 最適量으로는 최소한 14冊 程度

(2) 年次增加量 範圍는 最小量으로는 最小限 學部學生 1人當 0.6~0.7冊 程度, 最適量으로는 최소한 1冊 程度

가 適合한 量으로 나타나고 있다.

40) Philip M. Morse, Library Effectiveness; a System Approach(Cambridge, Mass: MIT Press, 1968), pp.89~90.

41) 손경표, 前揭論文, pp.98~100.

42) 산출방법은 上揭論文, pp.100~105 參照.

圖協出版物案內

서울特別市 中區會賢洞一街
振營 서울 一〇〇一—一七七
五三七五三〇
電話(22)四八六四
五六一三

韓國十進分類法

(附)相關索引
修正版

A 5 版 / 七〇〇面 / 會四、〇〇〇원 / 非五、〇〇〇원

分類의 目錄은 資料組織의 兩大基本 作業이다. 蒐集한 資料를 保存하고 利用을 하기 위하여 보다 빠르게 檢索할 수 있도록 記號化하는 基本分類道具이다.

韓國參考圖書解題

韓國書誌事業會編

B 5 版 / 二六〇面 / 會三、二〇〇원 / 非二、五〇〇원

이 解題目錄은 우리나라에서 刊行한 參考圖書를 古典參考文獻으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刊行時期의 言語文字에 對하여 檢索할 수 있게 하여 現代에 研究資料로 利用되는 參考圖書類의 總集結로서 各學界의 研究者들에게 文獻情報을 提供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韓國書誌事業會編

B 5 版 / 一六五面 / 會一、六〇〇원 / 非二、〇〇〇원

이 解題目錄은 一八七—一九〇七年 外交文書五五三件, 監理署文書一八七—一九〇七年 外交文書六四件, 三件, 海關文書一八七—一九〇七年 外交文書六四件, 三件, 監理署文書一八七—一九〇七年 外交文書六四件, 三件, 當該分野研究에 貴重한 參考文獻이다.

韓國圖書館學叢書

十三種
卷

圖書館學翻譯叢書

八種
卷